





## 침입절도범 재소자의 수법 특성과 타겟하드닝 관련 인식\*

박현호\*\* · 김강일\*\*\* · 김효건\*\*\*\*

### 〈요 약〉

최근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범죄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용 되는 다양한 전략 중 하나인 소위 타겟하드닝(Target Hardening)의 효과성을 실제로 증명해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3분~5분이 침입범죄자들이 포기하거나 중단하게 되는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일부 간접적인 연구사례를 근거로 기준을 제시했을 뿐 보다 직접적으로 실제 침입범죄자들을 상대로 평균 침입작업 시간이나 침입공격에 방법 하드웨어가 저항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포기 시간 기준 등을 확인한 연구 사례는 전무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교도소에 수감된 90명의 침입절도범 재소자들 표본을 상대로 2018년 8월 한국의 전형적인 전문 침입절도범의 평균 범죄 경험 횟수, 교육수준, 연령, 키, 몸무게 등을 프로파일링하고, 구체적인 범죄수법과 평균 침입작업 시간, 그리고 뚫리지 않을 경우 포기하는 시간 기준 등을 국내 최초로 조사 및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침입절도범의 수감 전 절도범죄 횟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상습적 전문침입절도 범죄자였고, 신체적 특성으로는 보통 성인 남성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침입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장소는 주거시설이었고 그다음 상업시설, 교육시설 순이었다. 주거시설 중 침입범죄를 저지른 시설 유형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거시설 중에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아파트 고층(3층 이상), 아파트 저층(1~3층) 순으로 나타나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예상보다는 아파트의 경우 저층보다는 고층의 비율이 높아 아파트 고층이라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았다. 침입범죄를 위해 장소에 침입하는데 걸린 평균소요시간 응답을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침입에 성공

\* 본 논문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기술혁신사업(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과제번호: 1007-7985)의 중간결과가 포함되어있음을 밝힙니다.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1저자)

\*\*\*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보안정보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보안정보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

하나, 도구로 침입 작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시간을 재면서 하지 않다보니 다소 침입이 어려웠던 곳에서 오래 걸렸다고 판단하는 심리적 시간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범행을 포기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절반이상의 응답자가 4분 이하의 시간에도 범행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방법시설이 4분 내외의 침입저항 성능만 확보되어도 침입범죄가 절반 이상 예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즉, 방법시설의 침입저항 성능이 5분 이상 발휘된다면 대부분의 침입범죄자가 침입을 중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주제어 : 침입범죄, 타겟하드닝, 방법인증시설, 범죄예방, 재소자 설문**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고찰
III. 연구방법론
IV. 분석 및 논의
V. 결 론

## I. 서 론

범죄 중에서도 침입범죄는 주택·건조물·선박 따위에 침입하여 절도, 강도, 성폭행, 또는 살인 등을 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전국 범죄피해조사 2016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와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을 포함한 주거침입 관련하여 2014년에는 296,261가구가, 2016년에는 267,223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최수형·조영오, 2017: 119). 그런데 계획적으로 도구 등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 전문 범죄꾼이건 상황적으로 우연히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이건, 주택이나 건축물로 침입하는 행위는 단지 절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빈집털이를 하려고 건축물에 침입

했다가 여러 상황(빈집인 줄 알았는데 성인 남성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방어를 해 오는 경우나 여성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등)을 접함에 따라 공격성이 촉발되거나 연동되는 범죄심리 변화로 인하여 강도·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박현호, 2018)<sup>1)</sup>.

2012년 12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에 대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유형은 단연 침입범죄(25.7%)로 나타났다(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175만2782가구였던 여성 1인 가구 수는 2017년 282만7000가구로 12년 만에 100만 가구 이상 늘었다. 상대적으로 범죄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침입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여성 1인 가구의 빠른 증가는 이러한 불안감을 가속화하면서 침입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1인 가구 여성들은 남자인 척 험악한 가명으로 택배를 주문하는 등 범죄 표적을 피하는 소위 ‘택배꿀팁’을 공유하는 등<sup>2)</sup> 웃지 못 할 현상이 생겨나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국민이 가장 빈번히 피해를 입고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가 바로 침입범죄이다. 나아가 이것은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평온권, 즉 인권의 문제로서 지식과 정보에 한계가 많은 개인이나 산업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소방시설검정제도와 마찬가지로 방범시설검정제도화를 통해 부단히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적 의무 분야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점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도 않고 대중의 인식도 매우 약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서의 방범시설검정제를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볼 때, 그리고 Tseloni와 동료들(2014)의 연구와 국내외의 각종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할 때 이러한 대표적 생활안전의 위협인 건축물 침입 범죄들(절도, 강간, 강도, 살인)에 대한 실효적 대책은 타겟하드닝(target hardening: 대상물 강화) 전략인 ‘창문 등에 하드웨어적인 방법(성능)인증시설 설치’로 볼 수 있다. 타겟하드닝은 사람, 장치, 시스템을 활용한 감시, 출입통제 등의 수단으로 각종 위협로부터 보안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조치’인 물리보안(physical security)의 가장 핵심개념이자 제1세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서 핵심원리 중의 하나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1) 박현호(2018), 주거시설에 대한 CPTED 평가인증 기준 개선방안 연구, 경호경비학회지, 55.

2) 동아일보, ‘男인 척... 험악한 가명으로 택배 주문 女’ 2018-09-28일자.

(Cozens & Love, 2015).

또한 방범인증시설(certified security products)이란 유럽표준 EN 1627 등 국제표준에서는 건축물에 침입하기 위한 각종 시도와 개구부(일반적으로 현관문 또는 창문) 또는 개구부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도구나 손/발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개방하거나 파괴하는 공격적 행위를 일정 시간동안 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시설이나 제품으로 정의되고 있다.

물론 침입범죄에 대한 범규화 노력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대책으로서 2013년 이노근 국회의원 등이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규정을 포함하여 제출한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특히 ‘제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15년 4월 1일에 국토교통부 제2015-198호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제정 및 고시되었다. 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주택 등 건축물의 침입 방지를 위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는 의무적으로,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권장으로서 현관문과 창문에는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장치를 설치토록 타겟하드닝 기법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 성능기준을 국가표준인 KS로 제정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KS F 2637:2012, 「문, 창, 셔터의 침입 저항 시험 방법-동하중 재하 시험」과 KS F 2638:2012, 「문, 창, 셔터의 침입 저항 시험 방법-정하중 재하 시험」이다. 그렇지만 이 기준은 사람(시험원)이 직접 손발과 도구를 사용하여 침입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나 모래주머니 같은 사물이 창호를 밀거나 때려서 견고성 정도를 시험하는 시험기준일뿐이다. 유럽표준 EN1627, 일본 「건물부품의 방범성능 시험규칙」 등 외국의 대부분의 창호 및 방범시설의 침입성능 시험은 시험원이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이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www.sdtkorea.or.kr)<sup>3)</sup>에서 시험원에 의한 침입방어 성능 시험 방법에 대해 법정표준인 단체표준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기준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단체표준이란 일반적으로 ‘생산자 모임인 협회·

3)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는 방범기술과 제품의 표준을 개발하고 성능이 인증된 제품을 보급·확산하는 기관이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실무자들과 표준전문가, 학자들이 관련 기술을 연구·축적하고 있으며 범죄 취약 가정이나 주택에 방범인증시설 기부 설치 등 사회공헌 및 기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조합·학회 등 각종 단체가 생산업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표준<sup>4)</sup>으로 개념 정의되며 산업표준화법에 의하면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으로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용하는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 등록된 표준’을 말한다.

현재 단체표준 제정을 통해 공인시험기관의 하나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창호 등 방법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을 시작하였고 방법기술산업협회의 인증제품이 출시되기 시작하였다.<sup>5)</sup> 2016년 6월에 처음 출시된 방법인증시설은 창문 잠금장치와 방법창살로서 국내에서는 테스트베드로서 안산시에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내 유일의 법정인증표준을 보유한 전문단체인 한국방법기술산업협회의 단체표준은 2018년 10월 현재 3종(SPS-SDT0002-2044 방법문, SPS-SDT0001-2056 방법창살, SPS-SDT0005-2080 창호용 잠금장치)으로 시험원에 의한 시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능표준들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도구를 사용한 각종 침입 공격에 방법시설 또는 창호 그 자체가 얼마의 시간 동안 견디는지에 대한 방어 또는 저항 성능 시간이다. 특히 3분~5분이 침입범죄자들이 포기하거나 중단하게 되는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일부 간접적인 연구사례(예: 형사정책연구원 등이 교도소 재소자 20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sup>6)</sup>)를 근거로 침입 방어 시간 기준을 제시했을 뿐 보다 직접적으로 실제 침입범죄자들을 상대로 평균 침입작업 시간이나 침입공격에 방법 하드웨어가 저항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포기 시간 기준 등을 확인한 연구 사례는 전무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교도소에 수감된 90명의 침입절도범 재소자들 표본을 상대로 2018년 8월 현재 한국의 전형적인 전문 침입절도범의 평균 범죄 경험, 교육수준, 연령, 키, 몸무게 등을 프로파일링하고, 구체적인 범죄수법과 평균 침입작업 시간, 그리고 뚫리지 않을 경우 포기하는 시간 기준 등을 국내 최초로 조사 및 실증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법시설검정제도화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그간 주로 국제기준을 따라 국내 단체표준에 침입저항시간

4) 2009 단체표준 총람, 한국표준협회

5) 특히 방법문에 대한 실험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효건, 문상철, 박윤규, 박현호(2014)를 참고하기 바란다.

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연구총서 08-00, 2008’ 인용.

기준을 제시 했으나 그 기준의 근거를 제시할 뚜렷한 국내 데이터는 없었다가 이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확보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고찰

### 1. 이론적 배경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축물에 범죄예방설계나 타겟하드닝을 위해 성능이 검증된 방법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활동에 해당된다. CPTED는 건물이나 도로의 물리적 환경의 설계에 의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방법활동과 통합적인 방법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다(이상원, 2005)<sup>7)</sup>. 이러한 접근방법은 궁극적으로 출입문이나 창문 등 방법하드웨어를 여러 침입수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 즉 타겟하드닝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Cornish와 Clarke(2003)<sup>8)</sup>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을 정립하면서 범죄기회의 감소를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략에 따른 스물다섯 가지의 범죄예방 기법을 제시하였는데, 타겟하드닝은 범행에 필요한 노력을 배가 시키는(increasing the effort of offending) 전략에 포함되며, 은행강도방지 screen, 훼손 방지할 수 있는 상품 패키징 및 봉인, 자동차 도난 경보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 전략은 주출입문과 창문에 대한 시정장치 설치 등에 의한 접근통제(access control) 기법과도 같은 맥락으로 연계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접근통제는 CPTED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 중의 하나인 것이다.

### 2. 침입절도범과 타겟하드닝 관련 선행 연구 고찰

López와 Boelman(1998)<sup>9)</sup>은 네덜란드와 일본의 침입절도범 인식에 대해 비교분석

7) 이상원 (2005). 범죄예방론, 대명출판사

8) Cornish, D., & Clark, R. V., (2003). "Opportunities, precipitators and criminal decisions: A reply to Wortley's critique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In M. Smith & C.B. Cornish(Eds.) Theory for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Crime prevention studies(Vol. 16, pp 41-96). Monsey, NY and Cullompton, Devon, UK: Criminal Justice Press, 2003

9) L. pez, M. & Aeiiso J.R. Boelman(1998) Residential Burglary in Japan and The Netherlands:



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87년에 네덜란드 국가범죄예방국(LBVM)에서 36명의 구금된 주거침입절도범들을 설문하였고(1991년에는 106명을 상대로 2차 조사함), 같은 설문내용으로 1996에는 일본의 도시방법연구소(JUSRI)에서 35명의 주거침입절도범 재소자들을 설문한 바 있다. 양국 간 범죄 분류 상 침입절도범의 법률적 차이와 설문 문항의 다소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의 응답자는 모두 남성이었고, 90%는 전과가 있었다. 일본 침입범은 30~40대가, 네덜란드 침입범은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두 응답집단 공히 금전을 위해 침입을 하였다고 답했으며, 네덜란드 집단은 주로 주택 후면에서 유리창이나 뒷문을 부수거나 따고 침입한 반면 일본 집단은 주택 전면의 현관 출입문과 후면 창문 등으로 주로 침입하였다. 전자는 대부분 침입 작업을 위해 도구를 휴대하여 갔으며, 후자는 57%만 도구를 휴대하고 34%는 빈손으로 침입하였다고 응답했다. 두 집단 모두 열린 문이나 창문 등 접근용이성을 침입의 1순위로 응답한 반면 주민들의 문단속이 세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에서는 40%가 창문의 취약포인트를 뜯고 침입했다고 응답했다. 일단 침입한 직후부터 재물을 훔치고 나가는데 걸리는 소위 절도작업시간은 일본 침입범의 86%는 15분 이내라고 응답했고 50%는 5분 이내라고 응답하였고 네덜란드 집단도 주로 10이내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침입 후 의도치 않게 거주자와 마주칠 경우에 90%는 도주했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10% 정도는 폭력을 동반하는 강도로 돌변하거나 여성일 경우 성폭행으로 이어지는 확률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도 침입을 수법으로 한 범죄에 관한 연구가 소수이지만 존재한다. 한국형 사정책연구원에서 교도소 재소자 20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sup>10)</sup> 범행 장소 침입 후 범행을 마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10분미만이 40%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표 1 참고). 이는 범행소요시간이 장기화 될 경우, 거주자나 이웃에게 발각되거나 경찰이나 사설경비업체에 의해 체포될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 comparison of offender interviews, (<http://www.rcm-advies.nl>, 2018년 9월 28일 최종접속)  
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연구총서 08-00, 2008.

〈표 1〉 범행에 소요되는 시간

구분	빈도	%
10분미만	68	40.0
10-30분미만	61	35.9
30-60분미만	22	12.9
60분-3시간미만	10	5.9
3시간 이상	9	5.3
합계	170	100.0

또한 잠재적 범죄자가 범행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더라도, 철저한 방범시설은 최종적으로 범행대상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방범창과 출입문 잠금장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각각 69.2%, 55.9%로 나타났으며, 이는 방범창과 출입문 잠금장치가 없는 것이 범죄자를 유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잠금장치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방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잠금장치나 방범시설이 잘 뚫리지 않고 실질적인 범죄억지력을 갖출 만큼의 충분한 방어/저항 성능과 품질이 확보 및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침입범이 큰 노력 없이도 쉽게 깨뜨릴 수 있는 잠금장치는 실질적인 범죄억제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표 2〉 방범시설의 유무와 효과

구분	방범창의 설치		출입문 잠금장치		잠금장치의 효과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매우 그렇다	14	8.6	16	10.1	17	13.6
그런 편이다	52	32.1	54	34.0	41	32.8
아닌 편이다	53	32.7	60	37.7	43	34.4
전혀 아니다	43	26.5	29	18.2	24	19.2
합계	162	100.0	159	100.0	125	100.0

이밖에 침입범죄와 관련된 국내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주로 침입절도의 범행대상 선정 방식, 침입절도범의 행동특성 등 침입범죄가 어떠한 원인과 형태로 행해지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현호·조준택, 2014; 강용길·조준택, 2010; 신재현, 2010; 이상호, 2007 등). 특히 공식통계와 절도범죄 전문 수사형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침입절도의 구체적인 수법과 침입 도구 별 침입방법에 대해 가장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분류한 박현호·조준택(2014)의 연구가 있고, 수용 중인 침입절도범을 대상으로 범행선택의 위험성, 범행의 시간적·계절적 요인, 장소 및 지역적 특성, 음주·공범여부 등 범죄관련 특성을 조사하여 분석한 연구(김대권, 2010)가 있다. 김효건과 그의 동료들(2018)<sup>11)</sup>은 건축물에 대한 물리적 침입방지 성능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시험 방법 및 성능 기준을 제시 할 물리적 침입저항체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교도소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침입작업 시간이나 침입시도 시 풀리지 않아 포기하는 시간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함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국제표준과 외국의 방법시설 중 침입방지시설의 성능 기준을 따라서 국내에서 제정되어 실제 인증제품이 보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법적 근거이자 시험 기준인 단체표준이 제시하고 있는 시험원과 침입 저항 시간 기준의 실효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험원, 즉 사람이 도구를 휴대하여 수행하는 침입시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실제 침입 경험이 다소 있는 침입절도범의 주거 등 침입 관련 경험과 수법, 장애요인에 따른 의사결정, 그리고 인식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감 중인 침입절도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시험원의 성별, 연령, 신장, 몸무게 등의 요소들이 외국의 표준들을 볼 때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실제 그러한 신체 조건이 실제 체력이나 근력과 항상 상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관계성은 존재하며 국내 단체표준에서 시험원의 자격이나 신체 요건 등의 범위나 기준을 논의할 사회적 당위성이 요구될 경우를 감안하여 설문 항목에 포함하였다.

11) 김효건·박인욱·박현호·김강일(2018), 주거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물리적 침입저항체계 기준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1권 2호, pp. 41-83.

〈표 3〉 수감 중인 침입절도범 설문 문항표

설문 대항목	설문 세항목	설문 의도
인구학적 질문	성별	인구학적 특성 확인
	연령	
	교육정도	
신체 조건	키	침입범의 평균 신체조건 확인
	몸무게	
범죄경력	침입절도 횟수	전문성의 정도 확인
실제 침입한 주요 장소	주거시설(단독, 다세대, 아파트 저층 및 고층)	실제 침입범이 주로 침입한 건축환경의 확인
	교육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상업시설(상점, 기관, 사무실, 기타)	
침입이 용이하다고 인식되는 장소	주거시설(단독, 다세대, 아파트 저층 및 고층)	접근성, 침입용이성이 건축환경 별 침입 기회 제공의 정도 확인
	교육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상업시설(상점, 기관, 사무실, 기타)	
침입 방법	문단속없음, 부수고, 열고, 유리깨고, 기타	침입 수법의 확인
침입구	출입문, 창문, 담, 기타	주요 침입 포인트
침입 도구 및 공격 포인트	출입문 → 사용도구	침입구 별 침입작업 도구 및 공격점의 확인
	출입문 → 공격 포인트	
	출입문 → 사용도구	
	출입문 → 공격 포인트	
침입소요시간	창문/현관문 침입성공에 걸리는 시간 : 1이하 - 5분이상	평균 침입작업 시간
침입시도 포기 시간	몇 분만에 포기/중단?	침입공격 시간 임계치 확인
침입 시 장애요소	하드웨어, CCTV, 경보, 동작감지등, 특수형광물질	주거 침입 시 핵심 장애요소 확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공문 협조로 수도권에 소재하는 A교도소와 B교도소, C교도소 총 세 곳에 가서 교도관의 도움을 받거나 조사원이 직접 재소자들을 대면하여 총 97부의 설문 응답을 받았다.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한 7부를 제외한 90부를 최종 설문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툴은 SPSS 20.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교도소라는 조사 환경의 특성상 실제 접근 가능한 표본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이론 등 기회이론과 환경범죄학적 이론들을 가설 수립에 의해 검증하는 성격의 논문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이론과 국제표준 및 국내 침입범죄 방법성능시험 기준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데이터 확보와 그에 따른 기초적인 수준의 계량적이고 실증적 차원의 확인과 분석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 IV. 분석 및 논의

### 1. 침입절도범의 인구학적 및 신체적 특성

#### 1) 침입절도범의 인구학적 특성

설문 대상으로 한 침입절도범은 모두 남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평균 나이는 42세로 나타났으며 연령대 비율은 20대와 50대, 60대 이상이 각각 14%로 가장 적은 편이었고 30대와 40대가 각각 30%와 29%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정도를 알아본 설문에는 고등학교 졸업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 졸업이 25.4%로 많았다. 대학교 졸업 6.3%, 초등학교 졸업도 4.8%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대학원 진학한 사람이 없었고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다른 지능범들 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침입절도범의 신체적 특성

침입절도범들의 신장과 체중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본 결과 평균 신장은 170.5cm로 나타났는데 응답한 인원 중 50%의 인원이 175cm±5cm로 나타났고 나머지 응답인원 중 160cm대의 신장을 가진 인원이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중의 경우에는 평균체중이 73.1kg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보고서<sup>12)</sup>에 따르면 40대 남성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170.3cm에 73.39kg, 30대 남성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171.9cm에 75.05kg<sup>13)</sup>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입절도범들의 신체적인 특징이 보통 성인 남성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침입절도범들은 체격이 왜소하고 키나 몸무게가 평균 이하일

12) 2014년도에 개발된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16세-69세 남녀 6,413명을 대상으로 마틴(Martin)식 계측자, 체성분 분석기, 각도기 등 직접측정도구 및 3D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13) 국가기술표준원(2015),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보고서, 한국디자인진흥원

것이다라는 편견을 깨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 2. 침입절도범의 범죄경력

침입절도범의 수감 전 절도범죄 횟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초범인 경우가 28.8%로 나타났고 5회 이상 상습범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회 이상은 약 60%로 나와 상당수가 전문침입절도 범죄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침입절도범의 수감 전 침입범죄 횟수

횟수	빈도	유효 퍼센트
1회	26	28.8
2회	10	11.2
3회	9	10
4회	9	10
5회 이상	36	40
합계	90	100.0

## 3. 침입의 주요 건축 환경

침입절도범의 침입범죄 주요 건축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은 중복답변 까지 합하면 침입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장소는 주거시설이 7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상업시설 44.4%, 교육시설이 17.7%, 기타 4.5%로 나타났다.

〈표 5〉 침입 주요 건축 환경

	빈도	퍼센트	중복응답 포함
주거시설	41	45.6	70.0
교육시설	2	2.2	17.7
상업시설	21	23.3	44.4
기타	4	4.5	4.5
주거+교육	3	3.3	(중복답변)
주거+상업	8	8.9	(중복답변)
주거+교육+상업	11	12.2	(중복답변)
합계	90	100.0	

또한 주거시설 중 침입범죄를 저지른 시설 유형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거시설 중에는 복수응답 포함하여 단독주택이 41.3%,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39.7%, 아파트 고층(3층 이상)이 19.1%, 아파트 저층(1~3층) 9.5%순으로 나타나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상보다 아파트의 경우 저층보다는 고층의 비율이 높아 아파트 고층이라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이는 아파트 4층 이상에 사는 주민들은 “충분히 높아서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겠지”라는 착각에 종종 창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표적이 된다는 점을 실증한 것이다.

〈표 6〉 침입 주거시설 유형

	빈도	퍼센트	중복응답 포함
아파트저층	4	6.3	9.5
아파트고층	10	15.9	19.1
단독주택	22	34.9	41.3
다세대다가구	21	33.3	39.7
아파트저층+단독주택	2	3.2	(중복답변)
아파트고층+다세대다가구	2	3.2	(중복답변)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2	3.2	(중복답변)
합계	63	100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총 응답자의 65%를 차지하였고 상점이 17.5%를 차지하여 상점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사무실을 노리는 침입범죄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기타응답에서도 찜질방이나 간이음식점(포장마차)의 응답이 있어 상점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으로 추측되며 노상이라는 응답이 나왔는데 그 중 한 응답자에게 왜 노상으로 응답하였는지 물어보니 사무실에서부터 직원을 따라 나와 범행을 저질러서 그렇게 응답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설문 조사 내용을 좀 더 포괄적이고 직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면을 보여준다.

〈표 7〉 침입 상업시설 유형

	빈도	퍼센트
기관	2	5.0
상점	7	17.5
사무실	26	65.0
기타	5	12.5
합계	40	100.0

#### 4. 침입절도범이 생각하는 침입이 용이한 건축 환경

침입범죄가 용이하였던 곳으로는 복수응답 포함 주거시설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업시설이 43.3%, 교육시설이 16.7%로 나타나 주거시설에 대한 침입범죄 자들에 대한 범죄 용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실제 침입했던 건축 환경과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용이하다고 느끼는 곳에 실제 침입절도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침입 용이 건축 환경

	빈도	퍼센트	중복응답 포함
주거시설	41	45.5	62.2
교육시설	5	5.6	16.7
상업시설	24	26.6	43.3
기타	5	5.6	5.6
주거+상업	5	5.6	(중복답변)
주거+교육+상업	10	11.1	(중복답변)
합계	90	100	

또한 주거시설 중 침입범죄가 용이했던 곳은 중복응답 포함 단독주택 46.4%, 다세대/다가구주택이 35.7%, 아파트 고층이 16.1%, 아파트저층이 8.9%로 나타나 아파트 보다는 주택 쪽을 범죄에 용이하다고 보았으며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아파트는 저층보다는 고층이 오히려 더 용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 9〉 침입 용이 주거시설 유형

	빈도	퍼센트	중복응답 포함
아파트저층	5	8.9	8.9
아파트고층	9	16.1	16.1
단독주택	22	39.3	46.4
다세대다가구	16	28.6	35.7
단독+다세대다가구	4	7.1	(중복답변)
합계	56	100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총 응답자의 56.4%를 차지하였고 상점이 23.1%를 차지하여 상점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사무실을 침입하기에 수월하게 생각하는 침입범죄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침입 용이 상업시설 유형

	빈도	퍼센트
기관	5	12.8
상점	9	23.1
사무실	22	56.4
기타	3	7.7
합계	39	100

## 5. 침입의 수법

침입의 수법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이 문단속이 안 되어 있는 곳을 노린 것(36.7%)으로 나타났지만 시정장치를 열거나 부수고 들어간 경우도 각각 27.8%와 26.7%로 나타나 시정장치 관련 침입수법이 54.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경우는 4.4%로 침입범죄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침입 수법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범과 아마추어범, 전문범 등을 포괄하는 침입절도범죄자에 대한 대검찰청(2018)의 ‘2018 범죄분석’에서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분석에서는 ‘문단속 없음’이 40.6%, ‘시정장치 부수고’ 7.8%, ‘시정장치 열고’ 19.5%로 나와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이

침입 경험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전문범죄자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열린 창호로 들어가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잠긴 창호를 열거나 부수고 침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 범죄 당시 침입의 수법

	빈도	퍼센트
문단속없음	33	36.7
시정장치부수고	25	27.8
시정장치열고	24	26.7
유리깨고	4	4.4
기타	4	4.4
합계	90	100

## 6. 주요 침입구

침입당시 침입구에 대한 설문응답에는 출입문이 35.6%, 창문이 55.6%로 나타나 침입범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주요 침입구인 창문과 출입문을 우선순위로 하여 보호해야 침입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대상을 보호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요 침입구 보호를 위한 타겟하드닝 기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 이 또한 대검찰청(2018)의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분석 결과인 ‘출입문’ 62.8%, ‘창문’ 32.7%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인 전문범들은 주로 잠긴 시정장치를 열거나 부수고 침입을 하는데 현관문보다는 창문으로의 침입 작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창문에 대한 방법시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2〉 범죄 당시 침입의 수법

	빈도	퍼센트
출입문	32	35.6
창문	50	55.6
담	4	4.4
기타	4	4.4
합계	90	100

## 7. 침입구 별 침입 도구 및 침입공격의 포인트

### 1) 침입구 별 침입도구

아래의 <표 13>는 한국 단체표준과 외국 표준들의 등급 별 침입저항 시험을 위한 (침입)시험도구들의 유형들을 나타내고 있다.

<표 13> 국가 별 침입방어성능 시험을 위한 침입시험도구<sup>14)</sup>

표준	하드웨어	침입도구	통과 허용 구멍 크기
한국 단체표준	문, 방범창살, 창호용잠금장치	도구 카테고리 A, B, C로 분류, C로 갈수록 침입도구가 강력하고 전력 등을 사용	사각형 - 400mm×250mm, 타원 - 400mm×300mm, 원직경 - 350mm
유럽표준 EN1627, 1628, 1629, 1630	창, 문, 방범창살, 셔터,	맨손, 드릴머신, 전기를 사용한 도구 등으로 분류	시험원의 몸이 통과가능한 정도의 크기
영국국가표준 BS PAS24	문, 창문, 창살, 사시창, 실린더락	도구 카테고리는 A~G까지 다양. G로 갈수록 침입도구가 더 강력하고 전력을 사용	시험원의 몸이 통과가능한 정도의 크기
영국 단체표준 LPS1175	경보기, 문, 창문, 셔터, 잠금장치 등	도구 카테고리는 A~G까지 다양. G로 갈수록 침입도구가 더 강력하고 전력을 사용	시험원의 몸이 통과가능한 정도의 크기
네덜란드 NEN 5096 및 NEN 5089	창, 문, 방범창살, 셔터,	맨손, 드릴머신, 전기를 사용한 도구 등으로 분류	시험원의 몸이 통과가능한 정도의 크기
일본 「건물부품의 방범성능 시험규칙」	유리, 필름, 셔터, 도어, 사시 및 자물쇠 등 17 종류 3,227품목	맨손, 드릴머신, 전기를 사용어부에 관계 없이 5분 저항이 기준임	원의 직경 35cm, 타원 40cm×30cm, 직사각형 25cm×40cm
호주 AS 3555.1	문, 창문, 스카이라이트(천창), 환기구, 마루바닥	도구 카테고리 「①일반연장(common hand tools) : 끌, 스크루드라이버, 커터, 해머, 도끼, 바 등(단, 길이 1.5미터, 무게 3.6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②전기 사용 도구, ③유압 잭/웨지(단, 힘은 2.5톤 이하), ④산소용접기」의 4단계화	①최소 너비가 15센티미터 이상의 직사각형, ②직경 28센티미터의 원, ③빗변이 50센티미터 이상인 2등변직삼각형 중 하나

14) 박현호(2013) 방범인증제 국내 도입 모형 개발 및 법제화,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범죄과학연구소.

이 연구에서 침입절도범들의 설문 응답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 설문 응답에서는 주로 주거시설을 침입하는 특성 상 육중하고 특수한 장비나 도구를 사용하기 보다는 드라이버 등 간단한 침입도구만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범죄당시 창문을 통해 침입하였다는 재소자들 중 창문을 침입할 때 어떤 도구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해 응답한 침입절도범들의 경우에도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5명으로 나타났고 파이프 절단기를 사용한 사람이 5명, 드릴 종류를 사용한 사람이 7명으로 나타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 유사시에 숨기기 좋은 드라이버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경우에도 응답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드라이버라고 응답한 사람이 15명, 전동드릴이 4명, 빠루가 3명, 쇠지렛대를 이용한 사람이 1명으로 나타나 드라이버가 출입문을 침입하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침입공격 포인트

## 8. 침입 작업 소요 시간 및 포기(중단) 시간

설문 조사결과 침입범죄를 위해 범행 장소에 침입하는데 걸린 평균소요시간은 5분 이상이라고 한 응답이 32.2%로 가장 많았지만 3분대 이하가 58.9%인 것으로 보아 침입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침입에 성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5분 이상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점을 고려할 때, 도구로 침입 작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시간을 재면서 하지는 않다보니 다소 침입이 어려웠던 곳에서는 5분 이상 걸렸다고 판단하는 심리적 시간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침입 작업 중 간헐적 휴식 시간을 포함한 시간임을 유의해야 한다. 공인시험기관인 안전융합기술센터에서 시험 측정할 때에는 휴식 시간을 제외한 3분, 5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표 14〉 침입하는데 소요된 시간

	빈도	퍼센트
1분대 이하	11	12.2
1~2분대	15	16.7
2~3분대	27	30.0
3~4분대	8	8.9
5분이상	29	32.2
합계	90	100

침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5분 이상일 경우에 범행을 포기하겠다는 답변이 43.3%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침입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하는 범죄자들이 본인들이 쉽게 침입하기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침입시도를 하다가도 5분 이상이 걸리게 되면 범행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방법시설이 5분 이상을 방어하고 저항해 낸다면 침입범들이 범행의사를 중도 단념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평균소요시간은 5분 이상이 32.2%로 가장 응답이 많고(침입도구 준비 시간과 중간 휴식시간이 포함된 것임) 3분 이하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보아 순수한 침입 작업시간은 3분 내외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56.7%의 응답자가 4분 이하의 시간에도 범행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방법시설이 4분 내외의 침입저항 성능만 확보되어도 침입범죄가 절반이상의 상당한 숫자가 예방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는 즉, 방법시설의 침입저항 성능이 5분 이상 발휘된다면 대부분의 침입범죄자가 침입을 중도 포기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표 15〉 범행 포기 시간

	빈도	퍼센트
1분이하	9	10.0
1~2분	8	8.9
2~3분	18	20.0
3~4분	16	17.8
5분이상	39	43.3
합계	90	100

아래의 <표 16>은 한국 단체표준과 외국 표준들의 등급 별 침입저항 시간 기준을

비교한 것으로서 주택을 중심으로 한 침입절도범들의 설문 응답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의 저항 기준도 주거시설의 저항시간 기준은 평균 3~5분 정도이기 때문이다.

〈표 16〉 국가 별 침입방어성능 인증시설의 침입저항 시간 기준<sup>15)</sup>

표준	하드웨어	저항 등급	등급 별 침입저항 시간 기준
한국 단체표준	문, 방범창살, 창호용잠금장치	S1~S4등급	침입도구별(A,B,C)로 시험원에 의한 침입 공격 저항시간 5분 이상의 저항 성능
유럽표준 EN1627, 1628, 1629, 1630	창, 문, 방범창살, 셔터,	1~6등급 체계	하드웨어가 침입 가능한 구멍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저항시간 3분~15분
영국국가표준 BS PAS24	문, 창문, 창살, 샤시창, 실린더락	LPS1175의 약 2~3등급에 해당	맨손이나 간단한 도구에 의한 침입공격 저 항 시간 3~5분
영국 단체표준 LPS1175	경보기, 문, 창문, 셔터, 잠금장치 등	1~8등급 체계	하드웨어가 침입 가능한 구멍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저항시간 1분~20분
네덜란드 NEN 5096 및 NEN 5089	창, 문, 방범창살, 셔터,	1성(★)~3성(★ ★★) 등급	1성 및 2성 등급은 3분 이상, 3성 등급은 5 분 이상 저항(하드웨어가 침입 가능한 구멍 이 만들어질 때까지)
일본 「건물부품의 방법성능 시험규칙」	셔터, 도어, 샤시 및 자물쇠 등 17 종류 3,227품목	등급은 없으나 기준 통과 시 인증	(하드웨어가 침입 가능한 구멍이 만들어질 때까지) 5분 이상의 저항 성능.
호주 AS 3555.1	문, 창문, 스카이라이트(천 창), 환기구, 마루바닥	10분등급 및 5분등급	시험 레벨은 1~6레벨. 1레벨은 성인 1명이 일반도구로 침입공격, 3레벨은 1명이 전기 적 도구와 일반도구로 공격, 6레벨은 2명이 산소용접기와 일반도구로 공격하여 5분 이 상과 10분 이상을 기준으로 측정

## 9. 범죄 횟수에 따른 평균 침입시간과 평균 범행 포기 시간

범죄 횟수에 따른 평균 침입시간과 평균 범행 포기시간에 대한 one-way ANOVA 와 t-test를 시행한 결과 초범의 경우 범죄에 걸리는 평균침입 시간 응답이 4.27로 3~4분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범행을 포기하는 시간이 3.60으로 3번인 2~3분, 4번인 3~4분 사이 정도로 나왔다. 반면에 5회 이상의 범행을 하였던 수용자들의 경우도 범죄에 걸리는 평균 시간 응답은 4.79로 비슷하게 나왔으나 범행 포기시간 응답의

15) 박현호(2013) 방범인증제 국내 도입 모형 개발 및 법제화,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범죄과학연구소.

경우에는 평균 3.63으로 3번인 2~3분, 4번인 3~4분 사이 정도의 응답이 나왔다. 이는 최소 3~4분 정도는 견뎌야 범행을 포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t$ 값과 유의확률을 살펴보았을 때  $p$ -value가 0.05이상으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범죄 횟수에 따른 평균 침입시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 값	유의확률
범행 포기 시간	1회	4.27	1.348	1	5	0.918	.455
	2회	4.80	.447	4	5		
	3회	3.50	1.732	2	5		
	4회	4.00	2.000	1	5		
	5회이상	4.79	.419	4	5		
	합계	4.47	1.099	1	5		

〈표 18〉 범죄 횟수에 따른 평균 범행 포기 시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 값	유의확률
침입 시간	1회	3.60	1.430	1	5	1.227	.286
	2회	3.60	1.949	1	5		
	3회	4.67	.577	4	5		
	4회	4.50	.577	4	5		
	5회이상	3.63	1.257	1	5		
	합계	3.78	1.314	1	5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에 침입절도로 수감되어있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수감 전 행한 범죄와 관련된 동기 및 그와 관련된 상황들을 설문조사하여 향후 침입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동안 침입범죄에 대한 방범시설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있었으나 정확히 표준화된 기준과 제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설문조사 및 관련 범죄

재소자들의 경험을 통계 분석하여 표준화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침입절도범의 수감 전 절도범죄 횟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초범인 경우가 28.8%로 나타났고 5회 이상 상습범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회 이상은 약 60%로 나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전문침입절도 범죄자였고, 신체적 특성으로는 보통 성인 남성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보통 침입절도범들은 체격이 왜소하고 키나 몸무게가 평균 이하일 것이다’라는 편견을 깨는 결과가 나왔다. 침입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장소는 주거시설이 7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상업시설 44.4%, 교육시설이 17.7%, 기타 4.5%로 나타났고 주거시설 중 침입범죄를 저지른 시설 유형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거시설 중에는 복수응답 포함하여 단독주택이 41.3%,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39.7%, 아파트 고층(3층 이상)이 19.1%, 아파트 저층(1~3층) 9.5%순으로 나타나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상보다 아파트의 경우 저층보다는 고층의 비율이 높아 아파트 고층이라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침입범죄가 용이하였던 곳으로는 복수응답 포함 주거시설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업시설이 43.3%, 교육시설이 16.7%로 나타나 주거시설에 대한 침입범죄자들에 대한 범죄 용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실제 침입했던 건축 환경과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용이하다고 느끼는 곳에 실제 침입절도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시설 중 침입범죄가 용이했던 곳에 대한 응답은 단독주택 가장 높게 나타나 아파트보다는 주택 쪽을 범죄에 용이하다고 보았으며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아파트는 저층보다는 고층이 오히려 더 용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침입범죄를 위해 범행 장소에 침입하는데 걸린 평균소요시간은 5분이상이라고 한 응답이 32.2%로 가장 많았지만 3분 이하가 58.9%인 것으로 보아 침입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침입에 성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5분 이상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점을 고려할 때, 도구로 침입 작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시간을 재면서 하지는 않다보니 다소 침입이 어려웠던 곳에서는 5분 이상 걸렸다고 판단하는 심리적 시간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침입 작업 중 간헐적 휴식 시간을 포함한 시간임을 유의해야 한다. 공인시험기관인 안전융합기술센터에서 시험 측정할 때에는 휴식 시간을 제외한 3분, 5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침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5분 이상일 경우에 범행을 포기하겠다는 답변이 43.3%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침입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하는 범죄자들이 본인들이 쉽게 침입하기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침입시도를 하다가도 5분 이상이 걸리게 되면 범행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방법시설이 5분 이상을 방어하고 저항해 낸다면 침입범들이 범행의사를 중도 단념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평균소요시간은 5분 이상이 32.2%로 가장 응답이 많고(침입도구 준비 시간과 중간 휴식시간이 포함된 것임) 3분 이하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보아 순수한 침입 작업시간은 3분 내외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56.7%의 응답자가 4분 이하의 시간에도 범행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방법시설이 4분 내외의 침입저항 성능만 확보되어도 침입범죄가 절반이상의 상당한 숫자가 예방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는 즉, 방법시설의 침입저항 성능이 5분 이상 발휘된다면 대부분의 침입범죄자가 침입을 중도 포기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표본이 임의적이 아닌 편의적으로 수집된 한계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침입범죄 재소자들에 접근하여 실제 범죄자들의 시각에서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산업보안 및 범죄학, 경찰학 등의 관련 학문 분야와 생활안전 경찰행정에 학술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기여하였다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표준화된 기준과 제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립된 기준에 따라 검증받은 방법제품들의 설치될 수 있게 방법제품들에 대한 ‘방법성능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속히 보급 및 확산되어 국민의 범죄안전과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용길, 조준택 (2010). 침입절도범의 행동분석을 통한 침입절도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0(1), 185-212.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외국의 침입범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 *건축과 도시공간*, 21.
- 국가기술표준원 (2015).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보고서. 한국디자인진흥원.
- 권도이, 공일환, 이혜림 (2017). 공동체 치안 확립을 위한 CPO, 범죄예방인증 정책 연구. *경찰청*.
- 김대권 (2010). 침입절도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민간경비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2, 15-35.
- 김효진, 박인옥, 박현호, 김강일 (2018). 주거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물리적 침입저항체계 기준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1(2), 41-83.
- 대검찰청 (2018). 2018 범죄분석. 대검찰청.
- 박현호 (2013). 방범인증제 국내 도입 모형 개발 및 법제화. *범죄과학연구소*.
- 박현호, 조준택 (2014). 건축물 침입에 이용되는 침입수법 및 도구의 유형화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0, 57-86.
- 석청호 (2010). 협력치안체제 구축과 민간경비의 역할.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4, 67-90.
- 이상원 (2005). *범죄예방론*. 대명출판사.
- 이상호 (2007). 강도범죄의 실태 및 대구지역 침입강도 범죄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수형, 조영오 (2017).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표준협회 (2009). 2009 단체표준 총람. 한국표준협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 외국문헌

- Cornish, D., & Clark, R. V. (2003). Opportunities, precipitators and criminal decisions: A reply to Wortley's critique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In M. Smith & C.B. Cornish(Eds.) *Theory for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Crime prevention studies*(Vol. 16, pp 41-96). Monsey, NY and Cullompton, Devon, UK: Criminal Justice Press.
- Cozens, P., & Love, T. (2015). A Review and Current Statu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30(4), 393-412.

López, M. J. J., & Boelman, A. J. R. (1998). *Residential Burglary in Japan and The Netherlands: A comparison of offender interviews*, (<http://www.rcm-advies.nl>)

Tseloni, A., Thompson, R., Grove, L., Tilley, N., & Farrell, G. (2017). The effectiveness of burglary security devices. *Security Journal*, 30(2), 646-664.

【Abstract】

## Characteristics of Intrusion MO and Perception of Target Hardening of Burglars

Park, Hyeonho · Kim, Kang-II · Kim, Hyo-gun

It is quite difficult to actually prove the effectiveness of so-called target-hardening, one of the various strategies used to reduce crime, one of the serious problems in society recently. In particular, three to five minutes is often used as golden time for intruders to give up or stop, which is based on foreign and some indirect research cases in Korea, but there were no studies that more directly identified the average break-in operation time or the abandonment time based on the elapsed time when the shield hardware resists intruders. This study was the first of its kind in Korea to investigate and verify samples of 90 inmates of break-in burglars who were imprisoned in August 2018 by profiling the average criminal experience, education level, age, height and weight of typical Korean professional break-in thieves, and specific criminal methods, average break-in operation time, and the criteria for giving up if not breach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 the survey on the number of pre-invasion theft crimes by intruders, many of the respon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re criminals of professional invasions, and by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from ordinary adult men. Residential facilities were the highest in the world, followed by commercial and educational facilities.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types of facilities that committed intrusion into residential facilities, it was not safe to say that single-family housing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single-family housing, multi-family housing, apartment high-rise (more than three stories), and apartment low-rise (more than one to three stories) among residential facilities, and that the ratio of apartment high-rise was higher than expected. Based on the average time required to break into a place for an intrusion crime, it is assumed that the psychological time worked in a place where the break-in was difficult, since the break-in was not performed while measuring the time of the break-in operation. In the case of time to give up a crim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ould

give up the crime even in less than four minutes, suggesting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intrusive crimes can be prevented even if the facility has four minutes of intrusion resistance. This proves that most intruders will give up the break-in if the break-in resistance performance of the security facility is exercised for more than five minutes.

**Keywords:** Burglary, Target hardening, Certified security product, Crime prevention, Inmates survey